

서구인을 매혹한 신비로운 불교문화

해의불교칼럼

불교가 서구인들에게 알려지면서 함께 전해진 불교문화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구성 또한 다채롭다.

시, 소설, 드라마 등 문학 분야, 불화 등 각종 동양식 모피 서화, 그리고 조형 및 조소, 실용디자인 등 미술 분야, 또한 분재와 꽃꽂이, 축소관 정원 등 실내조경 분야, 궁도, 검도 등 무도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는 서구사회 곳곳에 신비롭고 아름다운 만다라로 피어났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 음식문화는 서구인들에게 올바른 섭생과 불살생의 계율을 동시에 일깨워 준다.

즉, 채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육식 위주의 불균형적 식단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한바 크다. 특히 선불교와 더불어 소 개된 차 문화는 경지된 심신과 지친 영혼을 함께 추스른다는 과학적 입증에 편승하여 서구사회 전역에 잔잔하게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차 문화와 선시 등 불교문화를 한데 엮은 '차이사라이' 등 국제동아리도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시와 술이 함께 어우르는 중국의 풍환적인 시주문화(詩酒文化)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인도 등 지역마다 독특한 차 문화가 있었으나, 다음의 글은 어느 미국 불자의 파란 눈에 비친 일본다도(日本茶道)의 모습이다.(이하 인용)

차는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천연수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음료다. 특히 선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차는 긴 세월 동안 다도(茶道)를 통해 단아한 인성교육과 정갈한 종교적 상징성을 이어온다.

나는 일본다도에서 중요시하는 정교한 절차에 대해 큰 존경심을 지니고 있으나 그들이 기대하는 만치 세밀한 설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일본다도를 축약하여 표현한바, 화경청적(和敬淸寂)이란 네 개의 한자에 대한 내 나름의 뜻풀이를 하고자 한다. 이는 어우름, 섬김, 맑음, 호젓함을 뜻한다.

이름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받들어 섬기며, 또한 밝고 어진 마음을 지니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가짐을 늘 지켜가는 걸 의미한다.

먼저 첫 글자인 화(和)는 불교의 주요 가르침이자 불교철학의 바탕인 상생연기, 즉 '더불어 존재하며 함께 어우름'을 내게 세삼 일깨운다. 차의 짙을 뜨게 하고 자라도록 해준 해와 비, 그리고 찾아올 일일이 가꾸고 거두어 준 고마운 사람들의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차를 즐길 수 없다.

또 기쁨진 흠이 없을 진데 차나무가 뿌리를 내릴 터도 없으며, 맑은 물이 없다면 따끈하게 끓여져 차맛을 우려낼 방도도 없다. 이처럼 수많은 인(因)과 연(緣)이 얽히고 설켜서야 비로소 한 잔의 차가 내 앞에 놓여진다. 그 다음 내가 해석하는 바로, 경(敬)이란 차맛을 키우는 차나무의 본질과 영양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경건한 감사의 자세를 뜻한다.

앞서 말한 해와 땅과 비와 사람 등 모든

고귀한 인연들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청(淸)은 내게 맑은 물을 떠올리는 바, 정갈한 물은 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순수 천연의 화학물질들이 우리나라에 한 다. 한 모금을 들이킬 때마다 우리 몸과 마음을 고이 씻어주는 차는 우리의 넋을 정갈하게 해주는 다르마의 이슬이며 모진 갈애(渴愛)를 달래고 추스르는 갈로수다. 마지막으로 적(寂)은 고요함이니, 그 가운데 음미하는 차와 차잔의 따스함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더없는 안온함을 안겨준다.

나 홀로 고즈넉히 들이키는 차잔에 스며드는 고매한 적막감은 참선을 통해 이르는 지고지순의 선경과 다를 바 없다. 엄격한 참선을 여법하게 수행한 다음에 마시는 차 한 잔은 격조 높은 자기정리의 방편이기도 하다. 언젠가 존경하는 선사님께서 내리신 차잔에 화답한 내 시의 첫 구절이다.

푸르른 봄날
따스한 차 한 잔
니르바나의 향기여
출처: BB(제임스 우어) 번역: 성휴 스님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②

정신외상 경험 후 불교 귀의

가톨릭, 유대교, 개신교 등의 환경에서 성장하나 어느 종교에도 무관심하던 올리버 스톤 도반이 불연을 맺도록 연등을 밝혀준 리리는 베트남 출신의 보살이다. 프랑스 식민지 통치에 쫓기고 다시 미국의 개입으로 만신창이가 된 베트남에는 전쟁의 상처보다 가혹한 개인적 비극의 슬한 흔느낌이 곳곳에 숨어있다. 베트남전쟁의 참전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기로 작심할 즈음 그는 이미 불성이 가득해 있다.

'플래툰' '7월4일 생'과 더불어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그가 제작한 영화 세편 중 '하늘과 땅'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프랑스 통치하 베트남의 농촌에서 태어난 리리는 순박하고 우직한 농사꾼 부부의 여섯째 딸이다.

프랑스인들의 핍박을 받던 그들은 1963년 베트남이 마을로 들어오면서 전쟁의 참화에 말려들고 그녀의 오빠와 남동생은 베트남에 징발된다. 그리고 곧이어 집안 정부군은 그녀를 베트남의 스파이더로 끌고 가서 가혹한 고문을 한다.

그러나 베트콩은 간신히 풀려나오 그녀를 되레 정부군의 첩자로 의심하

증을 극복하고 그를 받아들여려 하나 그는 사실상 생을 마감한다. 전쟁이 끝나고 어린 13살이 흐른다. 공산주의국가가 된 베트남을 찾은 그녀는 사이공에서 옛 인연들과 서글픈 재회를 한다. 첫 아이의 아버지이자 첫사랑이던 옛 주인은 누추한 물결의 막별이 노동자가 되어 있다.

정직한 풍요로움이 가득하던 고향 마을은 황폐한 땅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비참한 모습의 어머니, 언니, 오빠가 여태 남아 살고 있다. 꽤 잘사는 미국 시민이 되어 다시 찾은 고향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선 타향 일뿐이다. 이젠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그녀는 하늘과 땅, 허(虛)와 무(無) 사이 어 어디에 홀로 서성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대강의 줄거리다.

그런데 자전소설의 주인공인 리리 보살과 이를 영화화한 올리버 스톤 도반은 서로 성장배경이 전혀 다른 데도 희미한 공통점이 더러 있어 보인다. 절대적인 부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대체

로 단란한 가정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다가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엄청난 정신외상을 경험한다. 올리버 스톤의 경우, 부모가 주로 사교계 활동에 몰입하는 편이어서 교양 수준이 높은 부모들의 손에 키워진다. 타고난 신동이던 그는 다섯 살 때 이미 인형극 형태의 손극을 써서 사촌들에게 배역을 나눠주기도 한다.

그리고 일곱 살 때는 아버지로부터 글 한편을 쓰면 25센트씩 용돈을 받고, 아홉 살 때는 자신의 가족과 일상생활에 관해 무려 900쪽에 이르는 책을 써낸다.

그 후 그는 뉴욕 맨해튼의 명문 중하 나인 트리니티학교를 다니다 펜실베이니아 포츠타운의 엘비학교로 옮겨간다. 여류영화는 주로 프랑스에 있는 외갓집에서 보낼 만치 호사를 하던 그는 열다섯 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하자 큰 충격을 받는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의 부인은 물론 아내의 친구들과도 스캔들을 일으켜 부부는 이미 별거 상태나 다름없다. 가장 갑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이른 그는 학비 때문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외인 부대 용병이 되어 아프리카로 떠나려 한다.

성휴 스님

“부처님 가르침은 국제 평화의 초석”

반기문 총장, 웨삭 축하 메시지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5월18일 웨삭(佛藏) 축하 메시지를 발표,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이 현재 당면한 국제적인 대치상황을 완화하고 모든 중생에 평화와 안전을 주는 거대한 발원력이 될 것이라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깨닫도록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디 하나임을 일깨우고 이웃을 돌보며 인간애를 서로 나누

도록 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적 이익을 뛰어넘어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깨우침을 향하는 길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틀이 됩니다.”

특히 그는 이번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최근 발생한 미얀마의 사이클론과 중국의 지진 등 엄청난 대재앙으로 인해 가정과 생업을 상실한 피해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관심과 긴급지원을 호소했다.

출처: Sunday Times, BCTV

러산석불 중지진 피해 없어

신화사통신은 5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1200년 전 건립된 세계 최대의 종교적 조형물인 스한 석의 러산석불이 58년 만에 중국을 강타한 대지진에도 무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높이 71m인 동 석불의 관리책임자는 안전을 고려해 당분간 근접관람은 제한한다고 말했다. 5월 12일 발생하여 약 5만 명의 사

망자를 낸 지진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동 석불의 소재지인 러산 일대에는 현재까지도 여진이 감지되고 있다.

불가사의한 자연현상과 판다의 서식지로 유명한 스한성은 중국의 7대 관광지 중 하나로 지난해는 174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기록했으며 2000년 개봉해 아카데미 외국어부문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와호장룡(虎虎藏龍)'의 촬영현장이기도 하다.

출처: 新華社, China Daily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You are still carrying her.

사제는 아직도 그녀를 껴안고 있구려.

A heavy rain made muddy puddles here and there on the road. At one place a beautiful young woman was standing unable to walk across the muddy puddle. The elder of the two vagabond friars lifted her in his arms onto the other side of the road. Later at night, the younger friar whispered to the elder, "Brother, as liar, we cannot touch a woman?" The elder answered "No, brother." Then the younger asks again, "Then how is that you lifted that woman on the road?" The elder smiled at him, "I left her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but you are still carrying her."



비가 많이 내려 길에 여기저기 진흙웅덩이가 패었다. 거기 어디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웅덩이를 못 건너고 서있었다. 두 방랑 탁발승 가운데 사형이 그녀를 섬글 두 팔에 안아 건너편으로 옮겨줬다. 그날 늦은 밤 사제가 낮게 말했다. "사형, 우리 탁발수행자이니 여인에게 손을 대면 안되는 거지요?" "안되지요" 그러자 사제가 다시 물었다. "허면 사형은 어찌 이가 그녀를 안아서 옮겨준 것이요?" 사형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를 그길에 이 미내려왔소. 현대 사제는 아직도 그녀를 껴안고 있구려." 번역: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투투컴퓨터

전문가용 종합 역학프로그램 /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홈페이지 제작, 관리 / 종합사찰 서비스

전화: 서울 02)585-1141 / 부산 051)505-2434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축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인관리/명함관리/모듬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四柱大典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자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당신의 쉬고 있는 손! 10억짜리란 사실을 아십니까?

성장 카이로프락터 양성 | 성장 카이로프락틱 개강 |

포교! 스님의 능력이 경쟁력입니다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격학, 근육학, 척추 및 골반 선추 교정, 성장 크리닉 • 31쌍의 중추신경계 압박으로 인한 근본적 질환 퇴치, 척추질환, 알레르기, 빈혈, 천식, 기관지, 변비, 어지러움증, 정서불안, 허약체질,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갑상선 부작용 등등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님, 의료기관 근무자, 스포츠 마스터, 피부 미용사, 물리치료사, 체육관련 종사자, 봉사 활동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보자 및 실직·정년 퇴직자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6월 7일 (선착순 20명)

- 키크기는 영양(31%), 운동(20%), 환경(16%)등 후천적 요인이 실제 77%를 점하고 있다. 매일의 생활습관으로 거의 80%의 성장 발육 촉진을 시킬 수 있다.
- 키는 골단연골(성장선)이 성장호르몬과 기타 호르몬의 작용으로 골막에서의 영향으로 충분한 활약을 받아서 성장이 된다. 성장호르몬의 축진은 20세 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장호르몬촉진 제4스텝 명상법과, 척추 스트레칭, 발육촉진의 식단으로 최대의 성장선 발육을 기대할 수 있다.
- 본원은 귀하를 유능한 운동처방사로 탈바꿈 전국학생 80%의 촉만증으로 인한 성장발육장애와 작은키로 고민하는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키크프로그램으로 여법한 포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본원 해동체육지도사 2기 부터는 최상의 성장 크리닉을 함께 강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동체육지도사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85-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